

2013년 2월 9일



세모(歲暮), 세시(歲時) 풍속과 그리스도교 신앙

정월 초하루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릴 적 어른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설날 그믐날 밤을 지새우지 않고 일찍 잠들면 새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썹이 새하얘진다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유래한 우리 선조들의 전통에 따르면, 부엌에 머무는 집안 수호신인 조왕신(부뚜막신)이 설날 스무 나흘날 밤하늘에 올라 옥황상제에게 한 해 동안 그 집안의 상황을 보고하고, 설날 그믐날 밤에 한 해의 심판과 새해 길흉화복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민간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마지막 날, 온 집 안 구석구석에 촛불을 밝혀놓고 조왕신이 돌아오는 것을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밤새워 깨어있으라는 권고입니다. 조왕신을 기다리던 세밑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일 년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며, 보다 나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간신앙이 대부분 현세구복과 관련되었는데, 조왕신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해를 흥청망청 마무리하는 망년의 개념보다는 지나가는 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가올 새해를 생산적으로 준비하려는 건전한 풍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거래 관계에서도 채권자는 그믐날 자정 이전까지만 채무를 요구하고, 이후 정월 보름까지는 빚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한 시름 돌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제공하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던 복'이 분명 현세구복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시겠다던 복은 오늘 제 2 독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얻게 되는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위하여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두고 깨어 기다리다가 곧바로 문을 열어드리는 종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복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상 잔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주변에서 망년이라는 말 대신에 송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저 한 해를 잊자고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 다. 그 해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듯이, 현세의 삶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 살아야 내세의 영원한 행복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 계사년에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공지사항

- 축하드립니다. 최종 사목위원 명단입니다. (가나다 순)
 - 1 구역 (김태진, 이승환, 정진우, 황성필)
 - 2 구역 (이종재, 전은숙)
 - 3 구역 (오재영, 조남석, 한진)
 - 대학원 구역 (심성신)
 -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다음 주 미사(2월 16일)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재의 수요일>

오는 2월 13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가톨릭 전례력으로 사순시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머리에 재를 얹고 참회와 절제의 마음으로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St.Paul (12pm, 5pm) 또는 가까운 인근 미국성당에서 재의 수요일 미사를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단 모집>

2월 한 달 동안 독서단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은숙 글라라** 자매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sjeon95@mac.com)

<기도모임(계속)>

매주 금요일 1시에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장소는 매주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조은영 베다 (beda0528@hotmail.com) 자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며 어제 첫 모임을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모임은 **2월 22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계속)>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임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MS Word file)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문사항은 홍진국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